

‘강진형 농촌뉴타운’…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본격화

422억 투입 내년 기반 시설 완료
주택·스마트팜 기반시설 등 구축
179호 공급…주민 주도 자립 마을
청년층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강진군이 미래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422억원이 투입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은 임천리 일원에 약 19만㎡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까지 기반 시설을 조기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강진군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임천지구는 진입도로 확장, 주택단지 개발, 스

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해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진형 농촌뉴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재 편도 1차선인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과 물류 흐름의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강진군은 현재 관련 설계를 마무리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임천지구에는 총 179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138필지는 분양형, 41필지는 임대형으로 구성되며, 특히 임대형 주택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착률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급방식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어울리는 균형 잡힌 마을 조성을 가능하게 해 공

동체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현재 한지계획 수립을 위한 가평가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형 개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갈등 없는 진행과 향후 마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함께 준비해 임천지구 신규마을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발을 넘어 ‘주민 주도형 자립 마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 개발이 아니라, 강진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청년, 귀농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진형 농촌뉴타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천지구신규마을 조감도. <강진군 제공>

이어 “인근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권 확대,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군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 지역농가 체험 프로그램 ‘함평에서 놀자’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주민 주도 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

2030년까지 관광사업체 발굴·육성
창업·경영 지원 ‘관광두레 PD’ 모집
지역별 1명 선발…월 250만원 지원

함평군이 주민 중심의 함평형 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주민주도 관광사업체를 발굴·육성할 ‘관광두레 PD’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사업체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중 관광두레 PD는 ▲주민주도 관광사업체 발굴 ▲관광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주민 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며 성별·학력·주소지 제한은 없다. 다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타 기관·단체의 전일제 상근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별 1명을 선발하며, 월 2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지원 및 문의는 함평군 관광정책실 관광정책팀(061-320-2202)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02-729-9519)으로 하면 된다. 군은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관광 인프라와 나비대축제·물놀이페스타·국향대전·겨울빛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어우러진 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참여형 관광두레 사업의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육성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함평의 관광 자원과 주민 아이디어를 잇는 관광두레 PD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영암군-(주)백미당-(주)담아, 고구마 산업 발전 ‘맞손’

소비 촉진·판로 확대 등 협력기로
아이스크림·라떼 등 신메뉴 출시

영암 고구마를 활용한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지역농가와 기업 간 상생이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성심당의 영암 무화과 케이크, 바나프레소의 영암 고구마라떼에 이어 백미당이 영암 고구마 아이스크림과 라떼를 선보인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프랜차이즈(주)백미



당, 지역 고구마 공급업체(주)담아와 ‘영암군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각 기관·업체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공동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우선 백미당은 다음 달 영암 고구마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라떼 신메뉴를 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과 담아는 고구마 원료와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을 대표하는 고구마가 백미당의 기술력과 만나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제품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농가 소득과 기업 매출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내달 12일까지…유기질비료 등 5종
무안군은 16일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무안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비료는 20kg 한 포대당 1천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천300원~1천6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역 생산 제품은 포대당 최대 4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부터 공급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부숙 유기질비료는 10a(300평)당 2천kg(100포)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다. 군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년 초 지원 대상자와 공급 물량을 확정된 뒤, 농협과 공급업체를 통해 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광재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유기질비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 인공어초 수산생물 보금자리 ‘최적’

5년간 90억 투입 산란·서식장 조성
낙시 관광객 유입·소득 증대 등 기대

신안군이 다이아몬드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해 수산생물에 최적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일환으로 지난 9월 인공어초 68개 설치에 이어 최근에 123개를 추가로 투하했다. 이번에 투하된 인공어초는 수산자원 회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역 특성과 수산생물의 은신처 제공, 해조류 부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인공어초다. 신안군은 다이아몬드 해역에 2022년부터 5년간 총 90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자원(쥐노래미, 조파볼락)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지



금까지 1천96개 인공어초 투하와 수산 종자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 밖에도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 2026년도 볼락류 산란·서식장 조성(50억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현재 공모를 기다리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를 기반으로 낙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양훈 기자

목포소방-황박사 쏘드기, 안전홍보 MOU

겨울 화재 예방 의식 제고 목표
제품 박스 문구·예방 그림 삽입

목포소방서는 16일 “최근 겨울철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지역 제과업체 ‘황박사 쏘드기’와 생활밀착형 안전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방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겨울철 화재예방 공동 캠페인 전개 ▲안전문구 삽입 제품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황박사 쏘드기 제품 박스에 소방 안전문구와 전기화재 예방 그림을 넣는 방식은 시민들



이 자주 접하는 생활제품을 통해 안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홍보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성 황박사 쏘드기 대표는 “지역 안전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유통망을 기반으로 안전 메시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친숙한 간식에 화재예방 메시지를 더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안동 지역 문학 답사

영·호남 문학교류 탐방 35명 모집
29-30일 이육사문학관·도산서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영·호남 문학교류의 일환으로 안동 지역 문학 답사를 추진한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안동 이육사문학관과 도산서원 등지를 둘러보는 ‘안동 문학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답사는 지난 7월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육사와 남주’ 특별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해남과 안동 두 지역을 연계한 체

험형 문학 행사로서 군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안동 이육사문학관 특별전 관람과 연계 행사에 참여하고, 도산서원·유교문화박물관·예가마을 등 안동 일대를 탐방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전화(061-530-5127) 접수로 이뤄지며, 해남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5명이며 숙박(이육사문학관 생활관)과 차량(단체버스), 여행자보험은 지원되나 식비는 개인 부담이다. 이밖에 세부 일정은 땅끝순례문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